

한농공 해남·완도지사,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실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9.18 09:03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대성)는 지난 16일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고천암 방조제에서 황산면사무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해남진도축협, 해남군수협 등 4개 기관과 함께 약 50여 명이 참여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표적인 ESG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사 직원들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깨끗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고천암 방조제로 밀려든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대성 지사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중한 해양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공사의 ESG 실천 중 농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